



3면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현장 조사

# 전주매일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음 11월 29일) 제316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풍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주력

### 전북도,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발표

도내 경제계 기관·단체 참석 민생경제위탁회의 열어  
고용거버넌스 초점화 등 5개 전략·15개 과제 추진  
전북경제 활력 퍼포먼스·주요 시책 설명 등 진행돼

전북도가 민선8기 4년동안 농생명 바이오산업 등 지역의 강점을 살려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도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경제분야 50여개 기관·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민생경제 위탁회의를 열고,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일자리 종합계획은 농생명바이오, 첨단미래산업, 디지털대 전환 신재생에너지, 새만금 금융산업 등 지역특색이 반영된 일자리와 도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하고 전북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북도는 밝혔다.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에는 중앙부처 산업육성 및 지역고용활성화 계획을 반영해 기본방향과 추진체계가 담겨있다.

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방향을 △기업유치와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고용유발 효과 제고,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세대융합으로 젊어지는 농생명 일자리 안착, △도민 역량 맞춤형 일자리 매칭과 고용안전망 확대, △고용인프라 기반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주도의 지자체·유관기관·협의체 등과 '현안진단-의견수렴-사업기획-운영-성과모니터링'의 5단계 협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일자리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용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는 일자리 사각지대 Zero, 일자

리 백만개 창출을 위한 '전북 제로백 일자리 시대'라는 비전과 5대 추진전략, 15개 핵심과제를 수립했다.

고용거버넌스 초점화, 농생명 고도화, 신성장산업 도약화, 문화관광산업 혁신화, 일자리매칭 신뢰화를 5개 추진전략으로 수립하고, 4년간 5조 4,024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2만 403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자리 성과목표로는 현재 96만명 대인 취업자수를 100만명 대로 돌파시키고, '22년 상반기 기준 평균 68.4% 고용률도 4년 뒤에는 68.3%까지 끌어올리며, 특히, 현재 39만명 대인 상용근로자수를 매년 1.3%씩 확대해 41만명 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경제 부흥을 위한 전북의 약속을 표현한 전북경제 활력 퍼포먼스와 기관별 주요시책 설명이 진행됐다.

기관별 주요시책 및 협조요청, 2023년 달라지는 경제·산업분야 시책 안내, 주요 도정사항 홍보로 진행됐으며, 기관·단체는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민선 8기 도정 혁신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내년 경제상황은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힘겨워하는 전북도민을 위해 '원탁의 기사'가 되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전북도민의 민생경제를 살려내자"며, "일자리가 복지다.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2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경제분야 50여개 기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 위탁회의를 열고 민선8기 일자리 비전 발표 및 전북경제 활력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겨울철 철새 도래기 내년 2월까지 고병원성 AI 방역 총력 대응

### 도, 거점소독시설·오리농가 사육제한 확대 등 추진

### 도내 철새도래지 10곳·가금농장 주변 소독 강화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겨울철 철새 도래기에 맞춰 내년 2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중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12월 14일 기준으로 가금농장에서 총 46건이 발생했다. 이 중 전북도는 순창 신탄계를 위해 지속적인 소독과 민선 8기 도정 혁신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아생조류는 10월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 검출된 이후 12월 14일 현재 기준 총 87건이 검출됐다. 전북도는 부안 5건, 김제 2건으로 총 7건이 검출됐다.

특히 올해는 유럽 가금농장 발생이 11월 30일까지 기준 총 2,017건으로 작년 동일 기간과 비교했을 때 40% 증가했다. 미국은 작년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없었으나 올해 처음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후 지금까지 46개주에서 270건이 발생했다. 또한 일본도 10월 이후 가금농장에서 총 25건 발생했다.

전북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를 위해 도·시·군·동물위생시험소, 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등 24개소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신고·접수, 일제소독, 예방검사, 계열사 및 농가 교육·홍보, 거점소독운영 등 방역업무도 추진 중이다.

연중 운영되는 도내 거점소독시설은 16개소 이외 17개소를 추가로 신설해 현재 33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다.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차량은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농가에 제출해야만 출입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지역 29개 지점을 선정해 축산차량 출입 통제 중이며, 소독차량 78대를 투입해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주변 소독을 강화했다.

철새도래지 인근에 출입자제 현수막 62개를 게첨하고 방역지원본부 전화에 참여원을 동원해 매일 닭·오리 폐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밖에 도내 산란기금 190호와 오리농장 67호의 농장 진입로와 주변 소하천을 집중 소독하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전화예찰 및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김제용지 산란계 밀집지역은 전용 통제초소 13개와 계란화장장 2개소를 운영하고 소독차량 2대를 동원해 매일 2회씩 도로가 흠뻑 젖도록 소독하고 있다.

지난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감소에 효과적이었던 오리 사육제

한도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행하고 있다.

당초 4개 시·군 47호 81만수에서 6개 시·군 87호 15만 마리로 확대해 방역 취약 오리농가에 대한 사육제한을 추진 중이며, 49억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오리 사육이 많아 발생이 잦은 전남도(전국 55% 사육)와 역학 차단을 위해 전남도 오리농장에 출입하는 전용 사료차량을 별도로 지정 운영해 도내 오리농장과 교차 최소화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온이 낮아져 소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고압분무기 등 소독장비가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방역당국(☎ 1588-4080)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 을 한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고창군의회가 되겠습니다.

<고창군 구시포 해수욕장>

